



# 정교회주보

제2436호

2023.9.3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그리스 로도스섬에 있는 성 니콜라스 성당(사진)은 15세기경에 지어졌으며 독특한 건축적, 회화적 특징을 지닌 성당으로 알려져 있다. 로도스섬에 존재하는 돔을 얹고 단일 통로가 있는 사각형 모양의 양식으로 건축된 세 개의 비잔틴 성당중에 하나다. 내부에는 그리스도의 생애, 네 명의 복음저자, 여러 성인의 전신 성화 등이 그려진 벽화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 마태오 제 13 주일

성 안티모스 주교순교자  
성 피비 봉사자  
(제4조 • 조과 복음 2)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 82
- 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 186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 사도경 : 고린토전 16,13~24 (봉)230
- 복음경 : 마태오 21,33~42 ... 116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구원은 과정이다

**정**교회 신학은 구원이 성화(聖化)의 과정이라는 진리를 고수하고 있다. 성화란 그리스도를 본보기로 삼아 하느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은총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믿음을 그 연료로 삼아 우리가 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우리는 은총에 의해 그리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구원의 과정은 하느님과 인간이 서로 협조해야만 가능한 공동 작업으로,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동시적으로' 행해진다.

'구원으로 가는 길' 중에서

# 그리스도와 함께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은 십자가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를 믿고 그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을 맞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성사를 받는 그 시간에 “예전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 버리고”(로마 6,6)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로마 6,4) 세례성사 때에 물에 세 번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 삼일동안 무덤에 묻힘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를 통하여 성령의 은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은:

1.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닛사의 성 그레고리오스는 사도 바울로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했고 결국은 주님을 그 안에 모시게 되었다. 주님을 온전히 본받은 그는 이제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서 사는 것(갈라디아 2,20)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2. 주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되겠느냐?’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고린토 전 2,16)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필립비 2,5)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여러분은 사랑의 생활을 하십시오.”(에페소 5,2) 우리의 영적인 표상은 완전한 인간이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닮으십시오.”(에페소 5,1)

3.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은 우리의 뜻이 그의 뜻에 합당하고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우리의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게 되기를 빌어 왔습니다.”(골로사이 1,9) 그리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려고 노력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얻는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당신께서 기뻐하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히브리 13,21)

#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가르침 7

영국 수로즈의 안토니 블룸 대주교(1914-2003)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후** 시 ‘세상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하고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바울로 사도가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술을 주의깊게 듣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 두시오. 그때에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

다.”(디모테오 후 3,1-5)

주님께서서는 또한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가까왔으니 ...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어라. 올바른 사람은 그대로 올바른 일을 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 자, 내가 곧 가겠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자기 행적대로 갚아 주기 위해서 상을 가지고 가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묵시록 22,10-12)

오늘 우리는 과연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의로운 길을 잃어버린 세상 속의 한 부분으로 그저 생존해 있는건가요?

## 주간 예배 안내

\* 9월 8일(금) 오전 9시  
성모 탄생 축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 영원히 기억하시리이다

지난 8월 25일(금), 보리스 문이춘 대신부의 장남 다니엘 문준식 교우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인의 영혼에 평온한 안식을 주시길 기도하며,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 소 식

###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세계 총대주교청 시노드 위원 선출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의 거룩하고 위대한 시노드의 위원으로 선출되어 1년간 활동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으로 거룩한 직분을 잘 수행하시길 기원합니다.

### ■ 서울 성당 세례 성사

지난 주일(8월 27일), 15명의 슬라브인 예비신자가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 막심 성당에서 거행된 세례·견진성사 후에 성 니콜라스 성당으로 성가를 부르며 이동하여 성찬예배에 참여하고 성체성혈을 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례성사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기도 등 나머지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새로이 정교인이 된 이들에게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축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기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자 : 벤 볼리나, 블라디미르 알림베코프, 크세니 포키나, 안나 포키나, 이 아멜리아, 마리아 글라즈코바, 안나 클라즈코바, 데이비드 글라즈코브, 니키타 키스탈베크, 이 엠드미트리, (이상 영유아 10명)  
이 마야, 이 파벨, 윤 엘레니, 김 소피아, 김 울리아 (이상 성인 5명)

## 나태에 빠지면...

성인의 가르침

한 젊은 수도자가 사부에게 물었다.

“사부님, 저는 오랜 시간 기도하는 방에 있다 보면 나태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마도 의인들의 영원한 안식과 나태한 자들의 형벌에 대해 아직 깊이 생각해 보거나 공부를 시작하지 않아 그런 것처럼 보이네. 만약 자네가 이것들을 깊이 사색하고 규칙적으로 탐구했다면 자네의 수도처가 구더기로 가득 차서 자네 목까지 차오른다 해도 인내를 잃거나 나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일세.”